韓國의 産業構造

—— 第2次産業을 中心으로 ——

邊 衡 尹

<目 次>

I. 問題의 提起
II. 韓國 産業構造의 推移와 第2次産業의 發達
1. 解放前 産業構造의 推移
(1) 日帝의 植民政策과 第2次産業의 發達
(2) 解放前의 産業別 構成比 推移
2. 解放後 産業構造의 推移
(1) 南農北工産業體制의 斷絶과 6·25로 인한 産業被害
(2) 外援依存經濟體制와 産業構造의 變動
(3) 外資導入과 産業構造의 變動
(4) 解放後의 産業別 構成比 推移
III. 韓國 産業構造의 特徵
1. 第1次産業의 停滯性
2. 第2次産業의 脆弱性
3. 第3次産業의 肥大性
IV. 産業構造政策의 方向
1. 産業構造의 策定方法과 그 限界
2. 韓國 産業構造改編方向의 吟味
3. 韓國 産業構造改編의 方向

I. 問題의 提起

低開發國에 있어 經濟開發의 窮極的인 課題는 經濟諸部門間에 있어서의 構造的 不均衡性과 畸型性을 改編하는 問題로 要約될 수 있다. 물론 先進經濟의 經濟政策도 長期的으로는 構造政策的인 意味를 갖지 않는 바 아니나 一時的인 景氣對策的 性格을 한층 강하게 띠고 있어 構造改編이라는 政策課題는 後進經濟의 경우만큼 喫緊하고 切實한 問題로 되고 있지는 않다.

대부분의 後進經濟는 先進經濟와의 關係속에서 政治的 經濟的 被支配라는 그들의 歷史性으로 말미암아 自主的인 成長過程을 밟지 못하고 尤其한 構造的 不均衡性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後進國의 産業構造改編問題 나아가서 經濟開發問題는 先進國과의 國際經濟關係라는 觀點에서 考察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韓國經濟가 당면한 政策課題도 이러한 視角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임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다. 韓國經濟는 日帝의 植民政策과 解放後의 他律的인 經濟論理에 의하여 甚한 構造的 不具畸型性과 跛行性을 면치 못하고 있다. 生産에서 消費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國民經濟의 循環이 統一的으로 秩序지워져 있지 못할 뿐 아니라 各 部門間 地域間 階層間의 構造的 不均衡性은 오늘날 韓國經濟의 體質을 이루고 있다. 循環過程에서는 慢性的인 過少供給과 過多需要로 인한 國民經濟의 絶對的인 赤字現象이 累積되고 있으며, 産業部門別로 보면 農業과 非農業間, 大企業과 中小企業間, 生産財工業과 消費財工業間등에 尤甚한 不均衡性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여러가지의 不均衡性을 各産業部門間의 不均衡性으로 좁혀서 보면 後進經濟의 特性은 一般的으로 餘他産業部門에 비하여 第2次産業의 構造的 脆弱性으로 나타나며 第2次産業중에서도 消費財生産部門에 비하여 生産財生産部門의 構造的 脆弱性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經濟構造 또는 産業構造의 改編이라고 하면 全産業중 第2次産業의 構成比重을 提高시키는 것으로 要約되며 第2次産業중에서도 生産財生産部門의 構成比重을 높이는 것을 그 主要內容으로 한다. 결국 構造改編이라는 政策課題는 대부분의 경우 第2次産業의 早速한 開發育成에 그 目標가 놓여지게 된다.

經濟構造 또는 産業構造를 論議함에 있어서는 把握과 測定의 問題가 반드시 따르게 된다. 一般的으로 産業構造의 測定은 그 産業에 就業하고 있는 勞動力의 크기와 그 産業에서 産出되는 所得 또는 附加價値의 크기를 基準으로 하여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測定方法은 비록 測定技術上의 制約이 認定되기는 하나 量的分析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비록 就業勞動量이 늘고 附加價値構成比가 擴大되었다고 하더라도 産業構造가 質的으로 改善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즉 産業間構成比의 變動이 바로 産業間不均衡의 改善과 同一한 內容을 가질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各産業마다 發展段階가 서로 다른 二重構造 내지 複合構造的인 經濟體制를 띠고 있는 後進經濟의 産業構造를 把握하는데 있어서는 論理的으로 同質的인 經濟組織을 前提하고 있는 構成比에 의한 量的 測定方式은 그 理論的 限界에 逢着하지 않을 수 없으며 때로는 問題의 核心을 그르칠 危險조차 內包하고 있다.

그러므로 産業構造變動에 대한 質的 考察을 위해서는 一國産業活動의 支柱가 되는 生産物 및 生産要素의 需給關係와 그 手段이 되는 貨幣資本의 調達 및 流通에 대한 分析이 동

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즉 産業構造를 보다 實質的으로 把握하기 위해서는 産業內部的인 構造는 물론 外部的인 一般經濟構造까지도 分析對象속에 包括해야 할 것이다.

그밖에도 우리 나라와 같이 國民經濟의 對外依存的 性格이 강한 後進經濟의 産業構造를 測定 把握하기 위해서는 國內産業이 外國經濟 또는 外國資本과 어떠한 相關關係를 맺고 있는가를 分析의 對象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本稿에서는 이러한 視角에 立脚하여 韓國産業構造의 推移와 現況을 특히 第2次産業의 構成을 中心으로 하여 分析하고 그 特殊性을 導出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分析을 土臺로 하여 현재 推進중인 經濟開發計劃의 주요 政策目標에 관한 妥當性을 檢討해 본 후 韓國産業構造改編의 方向設定을 위한 前提를 摸索고자 한다.

II. 韓國産業構造의 推移와 第2次産業의 發達

1. 解放前 産業構造의 推移

(1) 日帝의 植民政策과 第2次産業의 發達

1876年 江華條約을 契機로 韓國은 他律的으로나마 廢鎖的인 封建經濟秩序를 開放하기 시작한 이래 1910年 韓日合邦에 이르기까지 植民主義列強의 經濟的 侵略의 對象으로 되었었다. 韓日合邦時까지 韓國은 擬制的인 土地公有制度를 基礎로 하는 封建的 經濟秩序를 存續해 왔으나 合併과 同時에 日帝는 原料採取와 製品販賣라는 基本的인 植民主義經濟政策을 強力히 展開함으로써 韓國의 資本主義的 産業體制는 端初的으로 構造的 畸型性을 띠고 生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즉 日帝는 韓國의 封建的 農業經濟體制를 米穀生産中心의 모노컬츄어的 農業體制로의 改編政策과 함께 地下資源開發 및 林業開發政策을 優先的으로 推進하였다. 이러한 經濟

<第1表> 主要鑛物 採掘量의 推移 單位 : M/T

年 度	石 炭	鐵 鑛	黑 鉛	銀(kg)
1910(A)	78,453	140,365	798	178
1912	127,870	122,503	1,034	225
1914	183,262	182,034	654	571
1916	190,760	245,418	786	777
1918	188,623	199,697	7,041	1,347
1920	289,036	447,247	11,212	24
1921(B)	310,590	242,225	7,214	92
B/A(%)	396.0	172.6	904.3	51.7

資料 : 朝鮮銀行調査部, 『朝鮮經濟年報』, 1948年版

政策에 따른 主要鑛物採掘量의 急激한 增大는 第1表에서 보는 바와 같다. 植民政策의 初期段階인 1910~21年間에 있어서 韓國 産業構造의 變動은 鑛業部門의 急速한 伸長으로 나타났다.

한편 工業部門에 있어서는 1917年의 朝鮮紡織과 1918年의 兼二浦製鐵所등 몇개 近代式工場의 設立을 除外하면 植民統治의 初期段階에 있어서는 農産物加工을 위한 精米所 및 食料品工場, 그리고 土着的인 煉瓦 및 石灰工場등이 支配的인 地位를 占하였다. 따라서 第2次産業의 構成은 아직 前近代的인 狀態를 그대로 지니고 있었다.

1920年代에 들어서면서 日帝의 植民政策은 우리 나라 産業構造를 農工併進體制로 改編키 위하여 비록 臨機的이고 跛行的이었기는 하나 工業部門의 勃興을 促進시켰다. 그 經濟的인 背景은 1929年의 世界大恐慌을 契機로 한 農産物價格의 低落과 이로 인한 農業의 生産性低下였다. 農業恐慌에 따른 低廉한 農業勞動力의 遊休化는 韓國에 대한 日本獨占資本의 有利한 投資誘因으로 되었다. 1927~35年間의 日本資本의 進出狀況을 보면 朝鮮窒素肥料工場, 朝鮮麥酒, 小野田시멘트(勝湖里工場), 東洋紡織, 鍾淵紡織등을 爲始하여 有數의 近代式工場이 簇出하였다. 이 期間의 工業振興은 土地收用令에 의한 工業用土地價格의 統制, 각종 補助金制度, 朝鮮米穀增殖計劃의 中止 및 南棉北羊政策의 推進을 통한 工業原料産物의 支援 등 積極的인 制度的 뒷받침을 통하여 더욱 強化되었던 것이다.

1936年 以後 中日戰爭의 勃發과 太平洋戰爭의 準備를 위하여 軍備産業體制로 轉換되면서 日本은 韓國의 産業體制에 있어서도 軍需産業으로서의 重工業部門의 開發을 必要로 하게 되었다. 重工業部門의 主要工場建設狀況을 보면 1936年의 朝鮮機械(現 韓國機械), 關東機械(現 大韓重機), 1941年의 朝鮮重工業(現 大韓造船), 1943年의 朝鮮研金屬(現 仁川重工業), 1943年의 三和製鐵所등이 거의 同時的으로 建立되었다. 또한 이러한 政策轉換에 따라 生産面에서 뿐 아니라 流通面에 있어서까지 統制를 強化하였는 바 그 法制的 뒷받침은 1937年의 資金調整法 및 外國爲替(換)管理法등이었다. 이들 法規를 통하여 戰時産業에 대한 重點的인 融資措置와 貯蓄奬勵가 強行되는 한편 輸入制限과 輸出統制를 통하여 韓國經濟의 現地自辨體制가 造成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現地自辨體制의 造成은 어디까지나 國民經濟를 形成하는 각 産業間의 自生的인 構成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戰爭遂行을 위한 植民政策의 強壓에 의한 消費構造의 畸型化를 통하여 極히 非正常的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참된 의미에서 産業構造의 變革 내지 改善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解放前의 産業別 構成比 推移

以上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解放前의 우리 나라 産業經濟의 展開過程은 첫째 1910年 韓日合併으로부터 1920年代까지 日本 獨占資本을 위한 工業原料産業의 開發期間과 둘째 1921年以後 1935年에 이르는 農工併進體制의 樹立時期 그리고 1936年부터 解放이 될 때까지 戰時 産業體制로의 改編에 따른 重工業化 및 産業體制의 統制時期로 大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可用資料를 통하여 産業別 生産額構成과 産業別 就業構成을 指標로 하여 解放前 우리 나라 産業構造의 變動推移를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解放前의 就業勞動力의 構成推移를 살펴보면 第2表에서 보는 바와 같다. 1930年과 1940年의 國勢調査結果에 의한 産業別 就業構成比率은 農林業과 工業이 同期間중 80.6%와 5.5%에서 74.8%와 4.8%로 각각 下落한 反面에 水産業 鑛業 商業등의 構成比率은 上昇하였다. 특히 前述한 바와 같은 積極的인 地下資源採掘政策에 힘입어 鑛業部門의 就業構成比率이 同期間중 0.3%에서 1.9%로 크게 늘어난 것은 特記할 만한 일이라 할 수 있다.

한편 工業部門에 있어 近代的인 工場建設이 相當히 이루어졌음에도 不拘하고 그 就業構成比가 오히려 下落하고 있는 理由는 다음의 두가지 側面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同 國勢調査의 對象이 韓國人만에 限하였으며 新規工場建設에 따른 工業部門의 就業勞動力의 增加는 日本人에 依存하는 比率이 높았기 때문에 相對的으로 韓國人의 就業構成比率은 적었다는 사실이다. 둘째로는 機械化된 近代的 工場의 建設은 從來의 土着的인 手工業部門의 就業量을 크게 減少시켰다는 사실이다.

以上과 같은 就業構成比의 變動을 다시 第1次産業(農林·水産業), 第2次産業(鑛工業) 및 第3次産業(商, 交通業)으로 區分하여 1930~42年間의 構成比推移를 살펴보면 第1次

<第2表> 解放前 産業別 雇傭構造 推移 單位：%

年 度	農 林	水産業	鑛 業	工 業	商 業	交通業	其 他	計
1930	80.6	1.2	0.3	5.5	5.1	0.9	6.4	100.0
1940	74.8	1.5	1.9	4.8	6.0	1.2	9.8	100.0
1941	69.2	1.7	2.0	4.4	7.3	1.4	13.5	100.0
1942	66.2	2.0	2.1	5.0	7.3	1.5	15.9	100.0

資料：産業銀行調査部,『韓國産業經濟十年史』(1945—1955)
朝鮮銀行調査部,『朝鮮經濟年報』, 1948年版
註：1. 1930, 1940年은 國勢調査(但朝鮮人人口)値임.
2. 其他에는 公務 및 自由業과 無職 및 無申告者가 包含됨.

産業은 81.8%에서 68.2%로 크게 下落한 反面 第2次産業은 5.8%에서 7.1%로 그리고 第3次産業은 6.0%에서 8.8%로 각각 增加하였다.

解放前의 産業別 所得構成比에 관한 第3次産業部門의 統計는 극히 未備하다. 따라서 1, 2次産業部門의 生産額에 限하여 産業別 所得構成比의 推移를 考察해 보고자 한다. 第3表에서 合併直後인 1912年의 産業別 生産額構成을 보면 農産物이 全體의 87.7%를 차지하여 壓倒的인 比重을 나타내었다. 여기에다 林, 水産業의 生産額을 包含한 第1次産業의 同構成比는 약 95%에 달한다. 이 比率은 당시 韓國이 얼마나 第1次産業爲主였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反面 鑛業과 工業의 同構成比는 각각 1.3%와 3.8%라는 至極히 낮은 水準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약 20年後인 1931年에 와서는 同構成比率에 많은 變動이 招來되었다. 農業은 87.7%에서 63.1%로 大幅的으로 下落된데 反하여 工業은 3.8%에서 22.6%로 크게 上昇하고 있다. 다시 약 10年後인 1940年에는 農業이 42.8%로 떨어지고 工業이 39.1%로 높아져 兩産業部門의 生産額은 近似한 比率로 까지 接近하게 되었다.

각 産業別 生産額의 構成推移를 1次産業과 2次産業으로 區分하여 考察해 보면 第1次産業은 1910~40年間 94.9%에서 55.0%로 下落한 反面에 第2次産業은 5.1%에서 45.0%

<第3表>　　解放前 産業別 生産額 推移

單位：千圓

年度	農業		林業		漁業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1912	403,609	87.7	20,372	4.4	13,072	2.8
1931	702,855	63.1	59,413	5.3	77,562	7.0
1935	1,208,911	51.8	118,064	5.1	164,003	7.0
1939	1,644,413	42.1	192,603	4.9	327,000	8.4
1940	2,052,562	42.8	236,673	4.9	350,000	7.3

年度	鑛業		工業		計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1912	6,185	1.3	17,153	3.8	460,391	100.0
1931	21,741	2.0	252,924	22.6	1,114,495	100.0
1935	110,429	4.7	730,806	31.4	2,332,213	100.0
1939	240,000	6.2	1,498,000	38.4	3,902,016	100.0
1940	280,000	5.9	1,873,634	39.1	4,792,869	100.0

資料：朝鮮銀行調査部,『朝鮮經濟年報』, 1948年版.
註：1939年以後의 漁業, 鑛業은 推定値임.

로 上昇하였다. 이와 같이 量的인 測定方式에 따르면 解放前 韓國의 産業構成은 長期的으로農業과 工業을 中心으로 많은 變化를 일으켰다고 하는 事實만은 分明하다.

다음으로 刮目할 量的 成長을 가져온 製造業部門에 대하여 살펴보자. 生産額을 基準으로 한 각業種別 構成比를 살펴보면 第4表와 같다. 1936~43年間에 있어서 金屬工業, 機械工業 및 化學工業을 包含하는 重化學工業이 29.7%에서 49.5%로 무려 20포인트나 增大되고 있다. 이러한 趨勢는 특히 1938年에 들어서면서 飛躍的인 上昇을 보였는데 이는 주로 日帝의 軍需産業體制로의 轉換政策에 따라 産業生産活動이 金屬 및 機械製品을 中心으로 하는 軍需品生産에 置重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第4表에서 보는 重化學工業部門의 構成比增大가 平和産業體制下에서의 生産財工業部門의 成長을 意味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때 W. Hoffmann 方式[1]에 의한 生産財工業과 消費財工業間의 構成比關係의 變動이라는 指標만을 가지고 解放前工業構造의 高度化, 나아가 全體的인 經濟發展을 論議할 수 없다는 것은 明白한 일이다.

<第4表> 解放前 工業部門別 生産額構成比 推移

單位：%

産業 \ 年度	1936	1938	1940	1943
重化學工業	29.7	41.0	46.4	49.5
金屬工業	4.9	8.0	9.2	14.6
機械工業	1.9	2.0	3.6	5.6
化學工業	22.9	31.0	33.6	29.3
輕工業	70.3	59.0	53.6	50.5
食料品工業	28.8	24.0	22.0	19.5
紡織工業	14.3	15.0	13.4	16.8
窯業	3.2	3.0	2.6	4.4
製材工業	1.4	1.0	1.4	5.9
印刷·製本	1.9	2.0	1.3	1.2
其他工業	20.7(5.8)	14.0(2.0)	13.9(2.0)	2.7(1.5)

資料：朝鮮銀行調査部, 『朝鮮經濟年報』, 1948年版

註：( )內는 電氣·가스業임.

2. 解放後 産業構造의 推移

(1) 南農北工産業體制의 斷絶과 6·25로 인한 産業被害

日帝의 植民主義經濟政策에 의하여 跛行的이며 不具畸型的으로 生長해 온 韓國의 産業

(1) W.Hoffmann, *Stadien und Typen der Industrialisierung*, 1931.

體制는 8·15解放과 더불어 그 跛行狀이 더욱 加重되었다. 원래 諸般 經濟與件에 비추어 南農北工的인 特質을 強하게 가지고 있는 韓國의 產業體制에 있어서 他律的인 國土兩斷은 單一經濟體制의 機能을 完全히 喪失케 하여 하나로의 獨自的인 成長을 不可能케 하고 말았다.

먼저 生產額을 基準으로 解放前 鑛工業部門의 南北韓構成比率을 살펴 보기로 하자. 第5表에서 보는 것처럼 1940年 現在 工業部門에 있어서 化學 金屬 窯業등은 약 80%가 北韓에 所在한 反面, 紡織 印刷製本 食料品工業등은 南韓에 所在한 比率이 壓倒的으로 높았다. 特히 金屬工業의 南北韓所在比率이 약 10% 對 90%였는데 反하여 機械工業의 그것은 오히려 72% 對 28%를 나타내어 兩工業간의 關聯產業의 關係는 完全히 斷絶되고 만 形便이었다.

鑛業部門에 있어서도 1936年 現在 鐵鑛 石炭등 主要鑛物은 물론 其他 非鐵金屬類도 北

<第5表> 解放前 南北韓 鑛工業 生產額比率 對比

單位：%

工業 (1940年現在)			鑛業 (1936年現在)		
	南韓	北韓		南韓	北韓
化學業	17.9	82.1	金(砂金)	29.3	70.7
金屬	9.9	90.1	金銀鑛	27.3	72.7
機械	72.2	27.8	鐵鑛	0.1	99.9
紡織業	84.9	15.1	銑鐵	—	100.0
木製品	20.3	79.7	텅스텐 및 水鉛鑛	21.5	78.5
印刷·製本	65.1	34.7	黑鉛	29.0	71.0
食料品	89.1	10.9	有煙炭	0.5	99.5
其他	65.1	34.9	無煙炭	2.3	97.7
電力 出力	78.1	21.9			
電力 年平均發電力	14.0	86.0			
	8.0	92.0			

資料：朝鮮銀行調査部,『朝鮮經濟年報』, 1948年版
註：電力의 構成比率은 解放直前임.

韓에 所在한 比率이 大端히 높았을 뿐만 아니라 電力도 92%가 北韓에서 發電되고 있었다.

다음에 解放과 國土分斷에 이은 混亂期에 있어서의 生產의 萎縮狀況을 살펴보자. 먼저 工業部門에 있어서 1939~46年間에 있어서의 生產萎縮狀況을 보면 食料品工業이 약 83%, 化學工業이 약 76%의 減少率을 보였으며 그 밖에 紡織 機械 및 製材工業을 合한 主要製造業生產減少率이 平均 71%에 달하였다.

이와 같이 解放과 더불어 우리 나라의 產業體制는 重要한 地下資源과 重工業部門의 生

<第6表> 主要工業 部門別 生產 萎縮狀況

(生產額 基準) 單位：千圓

	1939 (A)	1946 (B)	減少額(A-B)	減少率(A-B)/(%)
紡織	170,985	1,645,453 (67,855)	103,130	60.3
機械器具	38,405	2,156,173 (15,154)	23,251	60.5
化學	91,171	3,089,697 (21,714)	69,457	76.2
製材 및 木材品	13,746	1,566,826 (11,012)	2,734	19.9
食料品	213,628	5,186,549 (36,457)	177,171	82.9
合計	527,935	13,634,698 (152,192)	375,743	71.2

資料：朝鮮銀行調査部, 『朝鮮經濟年報』, 1948年版
註：1. ( )內數値는 1939-46年期間中 平均物價指數(742.28)에 의한 修正値임.
2. 1939年의 生產額은 南韓 9道의 集計임.

產施設이 거의 北韓에 偏在되고 南韓은 第1次產業과 輕工業部門만이 남게 되었다.

이처럼 畸型的이고도 脆弱한 韓國(南韓)의 產業體制는 다시 6·25事變으로 인하여 莫大한 產業施設의 被害를 입게 되었다. 製造業部門에 대한 被害狀況을 살펴보면 收復直後인 1950年 10月 現在 纖維工業 58%, 印刷工業 65%, 機械工業 38% 등 製造業平均 37%라고 하는 原狀에 대한 被害率을 보이고 있다. 다시 1951年 8月 現在를 基準으로 하여 본다면 第7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建物 및 施設 모두 더욱 甚한 被害狀況을 나타내었다.

<第7表> 6·25事變으로 인한 工業部門 被害狀況

(原狀에 대한 被害率) 單位：%

	1950年 10月 現在			1951年 8月 現在		
	建物	施設	平均	建物	施設	平均
食料品工業	20	20	20	30	30	30
纖維工業	56	61	58	64	64	64
印刷工業	65	65	65	75	75	75
窯業	15	10	15	25	20	24
化學工業	16	12	13	20	20	20
金屬工業	19	15	18	25	25	25
機械工業	46	23	38	60	60	60
總計	40	35	37	—	—	—

資料：韓國產業銀行調査部, 『韓國產業經濟十年史』
註：1951年 8月 現在 被害率중 纖維工業은 綿紡織工業, 化學工業은 유리工業, 金屬工業은 鐵鋼工業, 그리고 機械工業은 造船工業의 數値임.

(2) 外援依存經濟體制와 產業構造의 變動

解放과 동시에 南農北工의 單一經濟體制의 斷絶과 함께 政策不在로 인하여 一般產業生產活動은 全般的으로 麻痺 또는 萎縮되었고 이로 인한 物資需給의 不均衡性은 戰後經濟의 共通된 現象인 激甚한 인플레이션을 結果하여 國民經濟生活의 混亂은 可謂 極에 달하였다.

이러한 속에서 國民經濟의 混亂을 어느 程度나마 緩和 存續케 한 支柱는 美國의 對韓援助였다. 美國의 對韓援助는 解放以後 특히 休戰以後부터 1962年의 第1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이 執行되기까지 韓國의 產業生產活動뿐 아니라 國民經濟生活을 規定하는 主要한 要因의 하나로 되어왔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따라서 對韓美援助의 規模와 內容을 檢討해 보는 것은 이 期間에 있어서의 國內產業構成의 變動을 把握하는데 극히 有用한 接近이 될 것으로 보인다.

解放後 對韓美援助는 戰後占領地域에 대한 應急救護物資의 供給을 目的으로 한 GARIOA (Government & Relief in Occupied Area) 援助로 부터 始作된 이래 그후 國際情勢의 變動과 美國經濟自體의 要請에 따른 美國의 援助政策의 變遷으로 對韓美援助의 形式은 流動해 왔다.

第8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6年까지 導入된 總援助額은 3,967.8百萬弗에 達하고 있다. 그 構成을 보면 GARIOA, ECA & SEC, CRIK 등 純粹한 救護物資供與가 全體의 26.9%에 該當하는 1,068.6百萬弗이었고, PL 480號에 의한 剩餘農產物導入額이 525.2百萬弗(13.2%)에 이르렀으며, 防衛支援的인 性格과 產業建設을 同時에 圖謀하기 위한 AID援助總額은 2,251.8百萬弗에 達하였다. 다음으로 本格的인 受援期間으로 볼 수 있는 休戰直後부터 第1次經濟開發 5個年計劃이 시작되기까지의 1954~61年동안을 對象으로 하여 同援助의 導入部門別 內容을 檢討해 보자.

AID援助는 크게 施設材部門(計劃援助)과 原資材部門(非計劃援助)으로 區分된다. 第9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중에서 產業施設의 復舊와 建設에 直接投入되는 施設材部門의 導入比率은 1955年의 47.4%를 最高로 하여 年平均 20%~30%의 水準에 머물고 있다. 이중 鑛工業部門에 대한 供給額은 1954~61年 期間中 132.9百萬弗로서 全施設材導入額의 27.7%에 不過하고 나머지는 대개 鐵道車輛導入을 中心으로 한 交通部門과 其他 敎育厚生部門에 대한 導入額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鑛工業部門에 대한 導入施設材內容도 發電施設의 復舊 및 建設을 위한 것이 全體의 약 40%를 占하였다는 사실을 勘案하면 製造工業에 대한 施設材導入比重은 더욱 微少하였을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처럼 비록

<第8表> 解放後 外國援助 受入總括

單位：千弗

年度	合計	U S A				CRIK		UNKRA
		GARIOA	ECA & SEC	(1) PL480	AID	SUN	SKO	
1945	4,934	4,934	—	—	—	—	—	—
1946	49,496	49,496	—	—	—	—	—	—
1947	175,371	175,371	—	—	—	—	—	—
1948	179,593	179,593	—	—	—	—	—	—
1949	116,509	92,703	23,806	—	—	—	—	—
1950	58,706	—	49,330	—	—	—	9,376	—
1951	106,542	—	31,972	—	—	74,448	—	122
1952	167,327	—	3,824	—	—	10,299	145,235	1,9—
1953	194,170	—	232	—	5,571	8,365	150,422	29,580
1954	153,925	—	—	—	82,437	14,049	36,142	21,297
1955	236,707	—	—	—	205,815	4,950	3,761	22,181
1956	326,705	—	—	32,955	271,049	24	307	22,370
1957	382,893	—	—	45,522	323,268	—	—	14,103
1958	321,272	—	—	47,896	265,629	—	—	7,747
1959	222,204	—	—	11,436	208,297	—	—	2,471
1960	245,393	—	—	19,913	225,236	—	—	244
1961	199,245	—	—	44,926	154,319	—	—	—
1962	232,310	—	—	67,308	165,002	—	—	—
1963	216,446	—	—	96,787	119,659	—	—	—
1964	149,331	—	—	60,985	88,346	—	—	—
1965	131,441	—	—	59,537	71,904	—	—	—
1966	103,261	—	—	37,951	65,310	—	—	—
計	3,967,781	502,097	109,164	525,216	2,251,842		457,378	122,084

資料：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1967年版

註：1. 美公法 480號에 의거한 導入剩餘農產物 販賣代錢의 一部는 美側이 使用하므로 이는 援助로 看做할 수 없으나 便宜上 導入總額을 揭載함.

規模上으로는 莫大하였으나 그 內容으로 보면 援助物資의 大部分이 原資材로서의 消費財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러한 援資의 消費財中心의 性格에 따라 國內產業의 成長도 導入原資材를 製造 加工하는 消費財產業部門이 生產財產業部門보다 앞질러 發達하게 되어 同產業部門은 소위 三白產業(설탕, 밀가루, 廣木)의 好景氣를 謳歌하게 까지 되었다.

한편 生產財工業에 있어서는 1953~59年 期間中 UNKRA 資金에 의한 板硝子工場, 製紙工場 및 시멘트工場의 復舊 및 擴張事業과 長項製鍊所復舊 및 中小規模의 鐵鑛, 炭礦開發事業등을 枚擧할 수 있는데 不過하였다.

<第9表> AID援助 導入部門別 內容

(1954—1961) 單位：千弗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計
1. 施設材部門(計劃援助)									
農業 및 自然資源	198	3,404	1,784	5,947	4,549	6,876	4,981	1,862	29,601
纖 工 業	6,338	18,660	23,765	25,335	20,049	9,366	15,997	13,414	132,924
交 通	1,334	64,532	44,292	5,729	22,525	13,138	12,298	9,328	213,176
保 健 衛 生	255	2,106	2,099	2,741	3,786	3,079	3,165	602	17,833
敎 育	—	33	982	3,491	3,172	3,692	4,245	2,255	17,870
公 共 行 政	—	—	124	396	1,437	1,170	1,462	1,941	6,530
社會厚生 및 住宅	1,570	7,330	9,003	6,266	4,927	2,492	4,014	2,872	38,474
一 般 및 其 他	470	1,395	3,341	2,825	3,445	3,798	4,368	3,814	23,456
小 計(A)	10,165	97,460	85,390	92,730	63,890	43,611	50,530	36,088	479,864
2. 原資材部門(非計劃援助)									
農 業 物 資	23,405	28,443	37,747	73,758	41,736	32,426	36,807	16,962	291,284
燃 料	11,712	10,471	23,473	24.000	35,395	20,625	24,539	20,346	170,561
原料 및 半製品	30,518	54,937	107,171	105,638	97,960	88,895	76,933	55,223	617,275
販賣用投資材	6,637	14,504	17,268	27,142	26,648	22,740	36,427	25,700	177,066
小 計(B)	72,272	108,355	185,659	230,538	201,739	164,686	174,706	118,231	1,256,186
合 計(A+B)	82,437	205,815	271,049	323,268	265,629	208,297	225,236	154,319	1,736,050
A/A+B(%)	12.3	47.4	31.5	28.7	24.1	20.9	22.4	23.4	27.6

資料：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1966年版
註：施設材部門에는 技術援助分包含함.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하여 볼 때 1953～61年의 本格的인 受援期間중에 있어서 外國援助를 주된 動因으로 한 韓國產業構成의 改編은 國民經濟의 自立的 成長이란 立場에서 본다면 所望스런 實績을 擧揚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看取할 수 있다. 물론 一般的으로 後進國에 대한 先進國의 援助에 있어서 政治的 軍事的인 性格이 經濟的인 考慮에 先行되며, 經濟的으로는 受援國의 購買力助長을 통한 供與國의 剩餘商品處分이란 內容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供與國의 無償援助가 受援國의 經濟的 要請과는 無關하게 이루어져 왔다는 것은 當然한 論理에 속하는 일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우리는 對韓美援助가 韓國의 產業構造를 어떻게 改編시켰는가를 보자. 먼저 第1次產業에 있어서는 資本主義的인 生產樣式이 제대로 成立되지 못한 바탕 위에서 PL 480號에 의한 美國剩餘農產物의 大量導入으로 말미암아 生產性의 停滯와 構造的인 疲弊가 招來되었다. 第2次產業에 있어서는 國內 原料產業과는 何等의 關聯도 맺지 못한 채

所要施設 및 原資材를 거의 外國에 依存하는 消費財工業部門의 急速한 發達은 外國依存的인 産業體制의 深化와 生産財工業部門의 相對的 沈滯를 招來하였다. 이 결과 所要財貨와 用役의 상당한 部分이 外國勞動力에 依存하게 되기 때문에 生産이 없는 財貨의 流通은 流通部門만을 膨大시켜 第3次産業의 非正常的인 肥大化를 가져오게 되었다. 요컨데 外援에 의한 産業構造의 變動은 農業의 疲弊와 國內各産業間의 有機的 關聯性의 缺如에 의한 外國依存性의 深化로 要約될 것이다.

(3) 外資導入과 産業構造의 變動

韓國에 있어서 外國借款導入의 嚆矢는 1959年 1月 東洋시멘트會社의 施設擴張을 위한 DLF資金 2,140千弗의 借款協定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후 1961年까지는 通信施設의 擴張과 忠州水電建設등 몇個 事業을 除外하면 外國借款의 導入은 産業銀行을 통한 中小企業育成事業程度에 不過하였다.

1960年代에 들어오면서 美國의 無償援助는 줄어드는 한편 1962年에 시작된 第1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의 遂行에 따라 外資의 必要性은 크게 增大되었다. 또 1965年 韓日國交安結은 外國資本의 導入을 本格化하는 契機를 마련하였다.

1959~66年間 總外資導入確定分에 대한 財源別 年度別 內譯을 보면 第10表와 같다. 1966年末까지 確定된 外資總額은 外國人의 直接·合作投資分을 包含하여 약 724百萬弗에 達하고 있다. 이에 대한 産業別內譯을 살펴보면 公共借款에 있어서는 全體의 56.3%인 180,873千弗이 社會間接資本의 形成을 主內容으로 하는 3次産業部門에 重點的으로 投入되고 있으며 商業借款과 投資登錄은 一般製造工業인 2次産業部門에 거의 置重되고 있다. 즉 1966年末 現在 總商業借款確定分 330,921千弗중 약 79%에 該當하는 261,833千弗이 2次産業部門에 投下되고 있다. 다시 이를 業種別로 보면 化纖工場建設을 비롯한 纖維工業이 73,562千弗(28.1%)로 首位를 占하고 있으며 시멘트工業(21.9%), 肥料工業(20.7%) 등의 順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一般的으로 商業借款이 가장 投資受益性이 높은 2次産業部門에 置重될 때 外國資本導入에 의한 産業建設은 受取國의 産業構成을 如何히 變動시킬 것인가?

1957年을 고비로 한 對韓美國援助(無償供與)의 漸減趨勢와 有償借款方式으로의 轉換은 財貨의 流通側面에서 보면 消費財導入으로부터 生産財導入으로의 轉換을 意味한다. 한편 先進經濟의 立場에서 본다면 自國의 有效需要의 創出을 통한 投資機會의 造成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援助나 借款은 同一한 經濟的 意義를 갖는 것이다. 따라서 外資導入이 導入國의 産業構造에 미치는 영향은 供與國의 經濟的 利害에 따라 端初的으로 制約을 받지 않

<第 10 表>　　外資導入確定分 財源別 年度別 內容

(1966年 12月末 現在)　　單位：千弗

	計		1959—61	1962	1963	1964	1965	1966
	金額	比率						
1. 財政借款	350,266	48.4	20,477	52,481	9,500	37,930	76,550	153,328
美國	267,878	35.6	20,477	29,731	9,500	31,350	71,800	95,020
日本	45,808	6.3	—	—	—	—	—	45,808
西獨	31,180	4.3	—	8,750	—	5,180	4,750	12,500
其他	15,400	2.2	—	14,000	—	1,400	—	—
2. 商業借款	330,921	45.7	—	1,819	54,681	61,840	83,723	128,858
美國	45,633	6.3	—	—	33,795	6,298	4,066	1,474
日本	169,432	23.4	—	—	—	380	75,562	93,490
西獨	52,898	7.3	—	1,250	16,016	14,938	—	20,694
其他	62,958	8.7	—	569	4,870	40,224	4,095	13,200
3. 投資登錄	42,936	5.9	—	579	5,442	809	22,587	13,519
美國	36,271	5.0	—	579	5,138	365	21,285	8,904
日本	5,429	0.7	—	—	—	—	1,200	4,229
西獨	239	—	—	—	—	220	—	19
其他	997	0.2	—	—	304	224	102	367
4. 合計	724,123	100.0	20,477	54,879	69,623	100,579	182,860	295,705
美國	339,782	46.9	20,477	30,310	48,433	38,013	97,151	105,398
日本	220,669	30.5	—	—	—	380	76,762	143,527
西獨	84,317	11.6	—	10,000	16,016	20,338	4,750	33,213
其他	79,355	11.0	—	14,569	5,174	41,848	4,197	13,567

資料：經濟企劃院

을 수 없는 것이다.

導入國의 立場에서 볼 때 外國借款은 直接生產活動이 國內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國內의 雇傭量이 늘고 關聯國內產業의 振興을 가져온다. 그러나 高利潤의 追求를 目的으로 하는 民間外資는 短期間內의 元利金回收와 資本의 安全性을 그 一義的인 原則으로 할 것이다.

外資가 導入될 수 있는 產業分野는 受入國의 經濟與件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一般的으로 다음과 같은 諸條件이 要請될 것이다. 첫째 當該產業의 製品이 市場에 있어서 獨占的 價格을 形成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점에 있어서는 小數의 企業만이 存在해야 한다거나 市場占據率이 支配的이어야 한다는 積極的 條件이 반드시 充足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만 價格形成過程에 있어서 土着企業이나 政府의 作用에 의하여 計劃利潤率의 實

<第 11 表>　　外資導入確定分 產業別 構成

(1966年 12月末 現在)　　單位：千弗

	公共借款		商業借款		投資登錄		計	
	金 額	比 率	金 額	比 率	金 額	比 率	金 額	比 率
第 1 次 產 業	3,300	1.0	46,003	13.9	128	0.3	49,431	7.1
漁 船 導 入	—	—	46,003	13.9	—	—	46,003	6.6
水 利 干 拓	3,300	1.0	—	—	—	—	3,300	0.5
其 他	—	—	—	—	128	0.3	128	0
第 2 次 產 業	137,343	42.7	261,833	79.1	42,308	98.6	441,484	63.5
시 멘 트 工 場	9,172	2.8	57,519	17.4	224	0.5	66,915	9.6
肥 料 工 場	48,800	15.2	54,208	16.4	22,600	52.6	125,608	18.1
精 油 工 場	—	—	20,000	6.0	4,819	11.3	24,819	3.6
P V C 工 場	—	—	15,180	4.6	—	—	15,180	2.2
製 鐵 壓 延 工 場	—	—	15,257	4.6	—	—	15,257	2.2
纖 維 工 場	10,591	3.3	73,562	22.2	951	2.2	85,104	12.2
食 品 工 場	—	—	—	—	3,420	8.0	3,420	0.5
中 小 企 業 育 成	42,000	13.1	—	—	—	—	42,000	6.0
炭 鑛 開 發	14,680	4.6	—	—	—	—	14,680	2.1
其 他	12,100	3.7	26,107	7.9	10,294	24.0	48,501	7.0
第 3 次 產 業	180,873	56.3	23,085	7.0	500	1.1	204,458	29.4
電 力 施 設	63,476	19.8	20,970	6.3	—	—	84,446	12.1
交 通 運 輸 施 設	76,596	23.8	2,115	0.7	—	—	78,711	11.3
通 信 施 設	25,391	7.9	—	—	—	—	25,391	3.7
上 水 道 施 設	9,910	3.1	—	—	—	—	9,910	1.4
其 他	5,500	1.7	—	—	500	1.1	6,000	0.9
合 計	321,516	100.0	330,921	100.0	42,936	100.0	695,373	100.0

資料：經濟企劃院

註：公共借款中 AID 原資材借款 25,000 千弗과 MRO 資材借款(西獨) 3,750 千弗은 產業分類不明으로 除外함.

現에 決定的인 妨害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消極的 條件은 반드시 充足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參考로 主要外資事業體에 대한 市場占據率을 살펴보면 第 12 表와 같다.

둘째 이와 結付하여 當該製品이 生活必需品的인 性格을 띠워야 하는 즉 바꾸어 말하면 需要의 價格彈力性이 작아야 한다는 條件이다. 이 條件은 受入國의 客觀的인 經濟與件의 變動으로 인하여 企業의 盛衰에 影響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消極的 意味를 넘어서 製品供給을 통하여 受入國의 需要構造에 影響力을 行使함으로써 利潤目的을 安全하게 達成시킬 수 있게 하는 積極的 意味를 內包하고 있다.

세째로 列擧해야 할 條件은 原資材의 調達에 있어 獨占權을 行使할 수 있거나 關聯產業

<第 12 表>　　主要 外資事業의 製品別, 事業體別 市場占據率

(1966 年)

製品別	市場占據率	事業體別	市場占據率
F. 나일론 系	23.9	韓國나일론株式會社	23.9
비스코스 人絹絲	100.0	興韓化學纖維工業(株)	100.0
苧麻絲	100.0	韓國麻紡績株式會社	100.0
新聞用紙	11.0	三豊製紙株式會社	11.0
세미 케미칼 펄프	11.4	三洋펄프株式會社	11.4
페스탈 Streptomycin	100.0	韓獨레메디아工業(株)	100.0
V C	66.0	大韓프라스틱工業(株)	46.4
시멘트	39.8	雙龍洋灰工業(株)	39.8
電力 케이블 類	100.0	韓國케이블株式會社	48.1
라디오	66.7	金星社	57.9
電話器	75.0	韓永工業株式會社	42.8
E M D 交換機	50.0	九一精工株式會社	62.5
電力變壓器	58.6		

資料：韓國生產性本部, 『外資導入 및 借款企業體運營實態調査報告書』, 1966
註：事業體別市場占據率은 各 製品의 市場占據率을 平均한 것임.

에 마치는 影響力이 強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條件은 一見 附隨的인 問題에 屬하는 것 같으나 實은 受入國의 産業聯關關係 즉 原料産業과 製品産業間 또는 生産財産業과 消費財産間의 相互聯關性問題에 있어서 重要한 意味를 含蓄하고 있다.

以上의 諸條件은 대개 相互複合的으로 充足되고 있다. 그 一例로 戰後 조인트 벤처 (Joint-Venture)의 典型的 産業인 石油産業을 들어 현재 大韓石油公社와 美 걸프(Gulf)石油會社間에 合作으로 運營되고 있는 蔚山精油의 現況을 살펴보자. 걸프社는 20,000 千弗의 借款과 약 5,000 千弗의 投資를 行하고 있으며 油公은 1964 年 4 月에 正常操業에 들어가 1965 年에는 年間 무려 21억원(약 800 萬달러)의 純利益을 올렸다. 油公과 걸프間의 原油供給契約을 보면 稼動後 15 年間 또는 200 百萬배럴의 原油를 消耗할 때까지 걸프社는 原油供給獨占權을 갖게 되어 있으며 그 밖에도 傭船契約, 分配 및 販賣契約, 一般石油製品供給契約 등 數多한 契約을 締結함으로써 우리 나라 石油産業에 대한 獨占權을 鞏固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韓國에 있어서 代表的인 借款 및 合作投資企業體인 油公은 위에 열거한 세 가지 條件을 모두 지니고 있으며 특히 代替關係에 있는 石炭産業이 1964 年부터 採炭率의 鈍化를 겪고 있는 것도 세째의 條件과 結付하여 重大한 意味를 內包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事實로부터 우리는 先進國으로부터의 外資導入을 통한 後進國의 産業構造改編은 量的으로는 2 次産業中心으로 또는 生産財工業中心으로 刮目할만한 改善을 가져올 수

도 있으나 質的인 意味에서의 産業構造의 改編 내지 發展을 外資導入만을 통하여 期待한다는 것은 그릇된 論理이며 여기에 따르는 明白한 制約性을 認定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4) **解放後의 産業別 構成比 推移**

각 産業間의 所得 및 就業勞動力의 構成比推移를 통하여 살펴 본다면 解放後 韓國의 産業構造는 많은 變化를 가져왔다.

먼저 1953~65年間의 産業別 附加價値構成比의 推移를 살펴보자. 休戰當時인 1953年의 産業別構成比는 1次産業 41.4%, 2次産業 12.1% 그리고 3次産業이 46.5%로서 3次産業이 首位를 占하였다. 그후 1960年에는 同比率이 35.2%, 19.8% 및 45.0%로서 1次産業은 6.2포인트가 줄고 2次産業은 7.7포인트가 늘어났다. 다시 1965年에 와서는 1次産業과 3次産業이 32.3%와 42.1%로 각각 줄어든 反面 2次産業은 25.6%로 大幅 上昇하고 있다. 이처럼 1953~65年 期間中 韓國의 産業別 構成의 變動은 2次産業構成比의 增加를 통하여 量的인 改善을 가져왔다고 하겠다.

〈第 13 表〉 **産業別 附加價値構成比의 推移**

(1960年 不變價格) 單位 : %

年度	1次産業	2次産業	3次産業	國民總生産	年度	1次産業	2次産業	3次産業	國民總生産
1953	41.4	12.1	46.5	100.0	1960	35.2	19.8	45.0	100.0
1954	42.0	13.4	44.6	100.0	1961	37.4	19.8	42.8	100.0
1955	40.5	14.8	44.7	100.0	1962	33.4	22.4	44.2	100.0
1956	37.4	16.2	46.4	100.0	1963	32.5	23.8	43.7	100.0
1957	37.9	17.3	44.8	100.0	1964	35.1	23.1	41.8	100.0
1958	38.5	17.6	43.9	100.0	1965	32.3	25.6	42.1	100.0
1959	36.4	18.7	44.9	100.0					

資料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1966年版

註 : 1次産業에는 農業 林業 漁業, 2次産業에는 鑛業 採石業 製造業 建設業 電氣가스業, 3次産業에는 其他産業이 包含됨.

다음으로 産業別 就業人口의 構成比推移를 살펴보자. 1949年의 國勢調査의 結果에 의하면 就業人口의 産業別 構成은 1次産業 79.9%, 2次産業 3.7%, 3次産業 16.4%였다. 약 10年後인 1960年의 同調査에 의하면 그 構成은 각각 65.7%, 9.5% 및 24.0%로 變動되었다. 그후 1966年末 現在에 이르기까지 1次産業은 계속 下落하여 44.6%를, 2次産業은 계속 上昇하여 18.4%를, 그리고 3次産業은 37.0%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第 14 表參照).

第 13 表와 第 14 表를 對比하여 産業別 附加價値構成比推移와 就業勞動力 構成比推移와의 關係를 考察해 보면 1次産業은 附加價値構成比의 下落比率보다 就業勞動力構成比가

더욱 크게 下落하였으며 2次産業은 前者보다 後者가 더욱 큰 比率로 上昇하였다. 그리고

<第 14 表> 産業別 就業人口의 構成比 推移

單位 : %

産業	1949	1960	1962	1963	1964	1965	1966
第 1 次 産 業	79.9	65.7	50.9	48.5	44.4	43.5	44.6
第 2 次 産 業	3.7	9.5	15.1	17.6	18.1	19.6	18.4
第 3 次 産 業	16.4	24.0	34.0	33.9	37.5	36.9	37.0
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資料 : 經濟企劃院調査統計局
註 : 1949年 및 1960年 數値는 第1,2回 國勢調査 結果値이며 그外는 標本調査値임.

3次産業은 附加價値構成比가 줄어든 反面 就業勞動力構成比는 오히려 늘어났음을 찾아볼 수 있다.

한편 鑛工業센서스結果에 依據하여 1958年以後의 工業別 構成比推移를 살펴보자. 먼저 韓國標準産業分類上의 化學工業, 石炭 및 石油製品工業, 第1次金屬, 金屬製品, 輸送用機器, 電氣機器 그리고 一般機械등 7個工業을 重化學工業으로 包括하고, 餘他工業을 輕工業으로 하여 重·輕工業間의 構成比推移를 살펴보면 第15表 및 第16表와 같다. 즉 同表에서 보듯이 重化學工業部門은 1958~65年 期間中 附加價値構成比는 21.5%에 31.5%로, 就業勞動力構成比는 19.9%에서 26.9%로 각각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重化學工業部門의 構成比增大를 誘導한 業種은 金屬, 機械工業보다도 石油 및 石炭製品工業을 包含하는 化學工業이었다. 한편 輕工業部門의 構成比가 下落한 것은 主로 紡織工業에 의하여 誘導되

<第 15 表> 製造業 部門別 附加價値構成比 推移

單位 : %

産業		1958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重化學工業	化學工業	7.4	8.6	12.6	14.4	13.9	15.6	15.0
	金屬工業	6.6	5.8	6.7	6.3	6.8	5.3	7.4
	機械工業	7.5	7.4	6.4	8.3	9.2	8.7	9.1
	小計	21.5	21.8	25.7	29.0	29.9	29.6	31.5
輕工業	食料·飮料品	20.2	18.9	22.1	21.6	20.9	20.9	16.9
	紡織工業	27.4	23.6	21.5	19.4	20.1	18.8	17.5
	유리·土石	8.5	9.1	7.7	8.6	7.0	8.3	6.7
	其他工業	22.4	26.6	23.0	21.4	22.1	22.4	27.4
	小計	78.5	78.2	74.3	71.0	70.1	70.4	68.5
合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資料 : 産業銀行, 『鑛工業센서스報告書』 및 『標本調査報告書』
註 : 化學工業은 石炭 및 石油製品業을 包含함.

<第 16 表>　　製造業 部門別 就業構成比 推移

單位：%

産業		1958	1960	1963	1965
重化學工業	化學工業	6.6	8.1	10.3	8.8
	金屬工業	6.0	6.5	7.2	7.3
	機械工業	7.3	8.6	11.5	10.8
	小計	19.9	23.2	29.0	26.9
輕工業	食料·飮料品	15.5	16.4	13.2	14.1
	纖維工業	33.3	29.6	27.8	27.2
	유리·土石	7.3	6.0	6.0	6.8
	其他工業	24.0	24.8	24.0	25.0
	小計	80.1	76.8	71.0	73.1
合計		100.0	100.0	100.0	100.0

資料：上同
註：上同

있다.

끝으로 1960年以後의 第1,2次産品의 輸出構成比推移를 살펴보면 第17表와 같다. 第1次産品의 構成比는 1960年의 85%로 부터 1966年의 42.6%로 크게 低下하고 있는 反面에 第2次産品의 構成比는 急增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第2次産品의 增加는 1962年以後 政府의 輸出振興政策에 따른 合板, 亞鉛鍍鐵板, 綿織物, 人絹織物 등 加工輸出分의 刮目할 增大에 주로 基因하고 있기 때문에 同輸出構成比의 增大가 바로 韓國에 있어서의 2次産業의 質的發展을 意味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第 17 表>　　第 1,2 次産品別 輸出構成比 推移　　單位：%

年度	第 1 次 産 品	第 2 次 産 品	計
1960	85.0	15.0	100.0
1961	83.0	17.0	100.0
1962	78.8	21.2	100.0
1963	55.3	44.7	100.0
1964	52.0	48.0	100.0
1965	40.1	59.9	100.0
1966	42.6	57.4	100.0

資料：韓國銀行

III. 韓國 産業構造의 特徵

松原藤由教授는 1950年代 後半期 日本産業構造의 特殊性을 다음과 같이 指摘하였다. 즉 ① 農業의 非近代的인 零細經營의 多數存在 ② 國家資本과 財閥의 獨占的 大經營 ③ 中小

企業存在의 量的優位 ④ 輕工業의 支配的 地位 ⑤ 工業의 軍事型的인 發展과 重化學工業의 後進性 ⑥ 高度의 貿易依存性 ⑦ 外國資本에의 從屬性등이 그것이다.(2)

以上과 같은 松原敎授의 日本 産業構造에 대한 所說은 비록 그 程度의 差異는 있겠으나 오늘날 韓國의 産業構造上의 特徵을 理解하는데 있어서도 적지 않은 示唆를 준다. 韓國의 경우에 있어서는 日本에 비하여 第1次産業(특히 農業)이 餘他産業에 비하여 더욱 停滯되어 國民經濟의 二重構造的 性格이 더욱 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第2次産業에 있어서 重化學工業部門의 相對的 脆弱性과 中小規模企業의 量的優位性 그리고 高度의 貿易依存性과 外國資本에의 從屬性등은 韓國의 경우가 더욱 強하다. 反面 國家資本과 財閥의 獨占的 大經營體制나 工業의 軍事型的인 發展樣相등의 部面에서는 日本이 더욱 強하다고 보겠다.

그리고 오늘날 後進經濟는 「클라크」의 所論(3)에 의한 第3次産業의 發達과는 다른 第3次産業部門의 畸型的인 肥大症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하나의 두드러진 特徵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 韓國産業構造의 特徵을 各産業別로 나누어 보다 詳細히 考察해 보기로 한다.

1. 第1次産業(農業中心)의 停滯性

封建的 經濟秩序속에서 오랜 歲月동안 生産力 發展이 抑壓되어온 韓國農業은 近代化過程에 있어서도 日帝의 植民政策과 外國의 剩餘農産物導入政策에 의하여 自體內의 擴大再生産을 可能케 할 資本蓄積을 이룩하지 못한채 農業生産性이 極히 停滯되어 왔다.

韓國農業을 둘러싼 이러한 歷史的 事情은 ① 生産力의 停滯 ② 前期的인 家族經營方式 ③ 耕作地의 狹少와 零細經營規模 ④ 米穀偏重의 單一耕作體制나 赤字經營 ⑤ 非生産的인 潛在失業群의 大量包擁 ⑥ 農産物加工業의 未發達등 構造的 特性을 결과하였다.

이러한 諸現象은 國民經濟의 循環過程에서 볼 때 農業部門과 非農業部門간의 有機的 聯關性의 缺如 즉 換言하면 非農業部門에의 食糧 및 原材料供給과 非農業部門으로부터의 農業用品 및 家計用品購入上에 있어서의 相互聯關性의 缺如 또는 不圓滑을 통한 二重構造的 性格을 짙게 하고 있다.

먼저 解放後 米穀을 비롯한 主要穀物의 生産力推移를 살펴보면 第18表에서 보는 바와 같다. 米穀의 段當收穫高는 1945年에 175kg 이었던 것이 1965年에는 283kg으로 期間中 약 62%의 生産力增大를 가져왔으며 麥類는 同期間中 165%의 增大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1945年은 解放을 前後한 戰爭과 社會的 混亂期로서 生産量이 격감한 年度였으므로

(2) 松原藤由, 『經濟政策の展開と産業構造』, p 326.
(3) C. Clark, *Conditions of Economic Progress*, 1951.

比較의 基準年度로 잡는 것이 妥當치 못하다. 따라서 農業生産力이 어느 정도 回復된 1955年을 基準으로 하여 과거 10年間 穀物의 生産力增加率을 算出해 보면 米穀이 39.4%增, 麥穀이 34.2%增을 實現한데 不過하다. 그외 豆類, 薯類등 穀物의 生産力增大率은 한층 더 微弱하였다.

<第18表> 穀類 段當 收穫量 推移

單位：kg

年度	米穀	麥類	豆類	薯類	雜穀
1945 (A)	175	40	50	566	30
1950	192	86	49	621	33
1955	203	79	54	840	42
1960	203	100	47	703	39
1963	237	28	54	784	53
1965 (B)	283	106	55	986	56
B/A (%)	161.7	265.0	110.0	174.2	186.7

資料：農業協同組合中央會, 『韓國農政二十年史』
同 上 『농업연감』, 1966年版

다음 年度別 農家戶當 固定資本構成比推移를 통하여 農業經營方式의 變動을 살펴보자. 第19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農機具가 總固定資本중에서 차지하는 構成比는 1960年의 8.9%에서 1965年에 와서는 오히려 7.0%로 低下하고 있다. 이는 韓國農業의 經營方式이 從來의 手勞動에 의한 初步的인 方式으로부터 何等의 前進이 없었다는 것을 反證하고 있다.

<第19表> 年度別 固定資本 構成比(戶當平均)

單位：원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金額	%	金額	%	金額	%	金額	%	金額	%	金額	%
建物	7,523	44.6	8,530	42.5	9,211	47.7	13,425	57.6	12,132	56.1	11,863	48.4
大植物	1,620	9.6	2,060	10.3	853	4.4	630	2.7	992	4.6	1,116	4.6
大動物	6,230	36.9	7,680	38.2	7,536	38.8	6,908	29.6	6,940	32.1	9,802	40.0
農機具	1,500	8.9	1,820	9.0	1,804	9.1	2,336	10.1	1,551	7.2	1,725	7.0
	(100.0)		(119.1)		(115.0)		(138.1)		(128.1)		(145.2)	
計	16,873	100.0	20,090	100.0	19,404	100.0	23,299	100.0	21,615	100.0	24,506	100.0

資料：上同
註：( )內 數値는 1960年을 基準으로 한 年度別 增加指數임.

이와 더불어 代表的인 工業原料作物이라고 할 수 있는 棉花生産量은 1945年의 65,526㎏으로 부터 1949年에는 83,453㎏으로 增大하였다가 1965年에 와서는 不過 11,817㎏으로까지 減少하고 말았다. 따라서 오늘날에 있어서는 原棉의 國內需要를 거의 全量 外棉에 依

存하고 있는 實情이다.

以上과 같은 穀物類의 生產力停滯 또는 工業原料作物의 破滅의 原因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는 外國 剩餘農產物導入에서 찾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1956年 이후 美公法 480號에 의한 剩農物의 導入規模는 第20表에서 보는 바와 같다. 品種別 美剩農物의 導入實績은 1963年의 96,787千弗을 으뜸으로 하여 1956~65年 期間中 總 487,265千弗에 達

<第20表> PL 480號 剩餘農產物 導入實績

單位：千弗

年度	合 計	밀	보 리	수 수	옥수수	쌀	原 棉	其 他
1956	32,955	7,504	12,419	—	—	—	8,184	4,848
1957	45,522	1,520	4,608	—	—	26,840	1,807	10,747
1958	47,896	29,941	14,104	2,226	672	—	448	505
1959	11,436	3,623	140	6	575	—	6,986	106
1960	19,913	18,576	—	—	574	—	763	—
1961	44,926	20,162	2,141	90	247	—	21,492	794
1962	67,308	26,167	6,071	470	1,702	—	31,291	1,607
1963	96,787	55,670	5,170	538	1,193	—	31,766	2,450
1964	60,985	24,726	3,261	1	1	—	30,541	2,450
1965	59,537	28,394	1,293	—	—	—	29,717	133
合 計	487,265 (100.0)	216,283 (44.4)	49,212 (10.1)	3,331 (0.6)	4,964 (1.0)	26,840 (5.5)	162,995 (33.5)	23,640 (4.9)

資料：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1966年版
註：( )內는 構成比임.

하고 있다. 그중 小麥과 原棉은 각각 216,283千弗 및 162,995千弗에 이르러 總導入額의 44.4% 및 33.5%를 차지하고 있다.

다시 剩餘農產物導入에서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는 小麥과 原棉 두 品目의 1960年 以後의 實物導入實績을 보면 第21表 및 第22表에서 보는 바와 같다. 小麥은 年平均 약 444千M/T에 達하여 國內總供給量의 약 80%를 차지하여 왔는데 특히 夏穀凶作이 甚했던 1963年에는 무려 733千M/T을 導入하여 總供給量의 90%以上을 占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原棉導入實績에 있어서는 總導入量中 PL 480號에 의한 導入量이 약 86%에 이르러 全體原棉供給量의 약 79%를 차지하였다. 또한 總導入原棉에의 依存率은 年平均 94.3%에 達하여 現在 國內 綿紡工業에서 所要하는 原棉은 完全히 外棉에 依存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면 이와 같은 尨大한 外國 剩農物의 導入이 韓國農業에 어떠한 影響을 미쳤는가. 一部에서는 對韓美剩農物의 導入이 韓國農業에 미친 功過를 論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第 21 表>　　小麥生產量과 導入量 對比表

單位：㌧

年度	生產量 (A)	導入量 (B) 小計	PL 480	KFX	民間求償貿易	贈與其他	A+B	B/A+B (%)
1960	114,139	332,498	332,498	—	—	—	446,637	74.4
1961	123,684	329,579	329,579	—	—	—	453,263	72.7
1962	118,524	377,064	377,064	—	—	—	495,588	76.1
1963	54,091	788,757	732,952	41,805	—	14,000	842,848	93.6
1964	136,675	545,438	456,317	64,837	24,284	—	682,113	80.0
1965	132,477	440,954	435,950	—	—	5,004	573,431	76.9
合計	679,590	2,814,290	2,664,360	106,642	24,284	19,004	3,493,880	80.6

資料：農林部，『農林統計年報』，1966 年版
韓國產業銀行，『韓國의 產業(上)』，1966 年版

<第 22 表>　　原棉生產量과 導入量 對比

單位：俵

年度	生產量(A)	收集量	導入量 (B) 小計	PL 480	KFX	單納棉	B/A+B (%)
1960	27,910	856	248,335	243,571	4,764	—	89.9
1961	40,476	2,619	223,627	204,910	1,509	17,208	84.7
1962	25,898	2,223	279,568	249,257	11,536	18,775	91.5
1963	17,506	423	301,351	256,596	25,265	19,490	94.5
1964	16,956	73	328,862	262,120	52,149	14,593	95.1
1965	17,683	59	279,588	216,586	45,841	17,161	94.1
合計	146,429	6,253	1,661,331	1,433,040	141,064	87,227	94.3

資料：大韓紡織協會

理由를 내세워 그 功勞를 致賀하고 있다.(4) 즉 이는 解放後 絶對的인 食糧供給不足狀況속에서 食糧需給의 調節과 穀價暴騰을 防止함으로써 財政安定政策의 具現과 또한 農業의 安定的인 成長에 寄與하는 한편 製粉, 製糖, 綿紡工場등 關聯加工工場의 建立을 促進하여 製造業의 育成에도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主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論議는 一面的인 所說에 不過하다. 즉 비록 短期的으로 볼 때 食糧供給이 絶對的으로 不足하여 需要를 따르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그 健全한 解決은 供給增大를 生產增大를 통하여 需給均衡을 圖謀하는 한편 可能한 限 不要不急한 需要를 抑制하는 方向에서 찾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剩餘農產物의 계속적 導入政策

(4) 農業協同組合中央會, 『韓國農業의 諸問題』, 의「美國의 剩餘農產物處理와 韓國農業」

은 이와는 달리 不足食糧을 外國에 依存함으로써 國內의 增產을 통한 解決을 沮害해 왔다. 그 뿐 아니라 때로는 政府가 보다 많은 外援을 受入하기 위하여 國內 需要規模를 意識的으로 過大策定해 오기까지 하였다. 事實上 美剩農物은 國內供給不足量을 超過하여 導入되었으며 이는 農產物價格形成에 있어서 低穀價政策을 통한 低物價水準의 維持라고 하는 經濟論理를 可能케 하였고 다른 한편 必然的으로 農民의 生產意慾의 沮喪을 통하여 農業生產性의 停滯를 招來케 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政策의 持續은 農業의 非農業部門에 대한 不均衡的인 成長을 不可避하게 한 根本的 原因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韓國農業의 停滯性이나 二重構造를 論議함에 있어서는 日帝의 韓國農業政策과 함께 外國剩農物導入으로부터 問題를 提起하지 않을 수 없다.

2. 第2次產業의 脆弱性

앞에서 指摘한 第2次產業의 諸特殊性가운데서도 여기서는 製造業部門의 規模別 生產額構成比를 통한 中小規模企業의 存在樣態와 主要2次產品의 原資材에 대한 輸入依存度를 통한 2次產業의 對外依存性만에 局限하여 考察해 보고자 하다.

먼저 鑛工業센서스 結果에 의하여 製造業의 規模別 內容을 살펴보면 第23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3年 현재 消費財工業部門은 從業員 5人~49人의 小規模企業의 生產額이 全體의 31.1%, 50人~199人의 中規模가 21.5%, 그리고 200人 以上의 大規模가 47.4%를 차지하는데 反하여 生產財工業部門은 小規模가 41.7%, 中規模가 25.9%, 大規模가 32.4%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韓國에 있어서는 消費財工業보다 生產財工業이 企業規模가 훨씬 작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런데 一般的인 傾向은 先進經濟일수록 規模의 經濟性에 의하여 消費財工業보다 生產財工業이 企業規模가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一般的 傾向과는 달리 韓國에 있어서는 中小規模

<第23表> 製造業의 規模別生產額과 構成比

(1963年, 從業員數基準) 單位：百萬원

	合計		小規模 (5人~49人)		中規模 (50人~199人)		大規模 (200人以上)		(A)+(B)+(C)
	生產額	構成比	生產額	構成比 (A)	生產額	構成比 (B)	生產額	構成比 (C)	
全製造業	166,857	100.0	58,273	34.9	39,377	23.6	69,207	41.5	100.0
消費財工業	107,721	64.5	33,499	31.1	23,415	21.5	50,807	47.4	100.0
生產財工業	56,189	33.7	23,430	41.7	14,551	25.9	18,208	32.4	100.0
其他工業	2,947	1.8	1,345	45.7	1,411	47.9	191	6.4	100.0

資料：韓國產業銀行，『鑛工業센서스報告書』, 1963年版

註：生產財工業에는 化學, 石油 및 石炭製品, 유리 및 土石, 金屬 및 機械工業이 包含됨.

企業이 消費財工業部門에 있어서 도보다 生產財工業部門에 있어서 더욱 支配的이라는 事實은 하나의 重要한 特徵이 아닐 수 없다. 이는 韓國의 產業이 非正常的으로 成長하였다는 것 바꾸어 말하면 消費財工業이 國內 生產財工業의 發達에 基礎하여 成長한 것이 아니라 大部分의 消費財工業이 所要施設材를 外國의 生產財工業에 依存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對外依存性은 基本的으로 全產業의 基礎가 되는 生產財工業部門의 構造的 脆弱性으로부터 說明되지만 이를 現象的으로 보면 施設材와 原資材의 높은 輸入依存性에서 나타난다. 施設材에 있어서는 外資導入方式에 의하여 機械施設은 물론 設置 및 運營에 따르는 技術에 이르기까지 外國에 依存하고 있다. 한편 主要原資材輸入依存率을 살펴보면 第24表에서 보듯이 板유리 시멘트등 國內產 主原料를 갖고 있는 數個 業種을 除外하고는 大部分 높은 輸入依存率을 나타내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天然資源의 賦存問題가 擡頭되고 그 對外依存性이 施設材의 依存性에서처럼 바로 外國資本에 대한 從屬性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產業構造의 脆弱性을 規定하는 하나의 주요한 指標로 될 수는 있을 것이다.

<第24表> 主要製品 原資材輸入依存率

單位：%

	1963							1965						
	國產			輸入			計	國產			輸入			計
	主要材料	補助材料	小計	主要材料	補助材料	小計		主要材料	補助材料	小計	主要材料	補助材料	小計	
綿絲	0.6	9.8	10.4	89.5	0.1	89.6	100.0	0.1	8.7	8.8	90.9	0.3	91.2	100.0
毛絲	0.9	6.1	7.0	88.4	4.6	93.0	100.0	0.5	3.5	4.0	91.3	4.7	96.0	100.0
合板	1.8	5.6	7.4	88.7	3.9	92.6	100.0	7.2	5.8	13.0	82.7	4.3	87.0	100.0
타이어	14.7	2.4	17.1	75.0	7.9	82.9	100.0	22.7	4.6	27.3	69.4	3.3	72.7	100.0
고무靴類	25.2	21.4	46.6	51.2	2.2	53.4	100.0	22.4	15.3	38.7	58.5	2.8	61.3	100.0
板유리	28.6	49.6	78.2	18.3	3.5	31.8	100.0	20.5	49.1	69.6	26.5	3.9	30.4	100.0
시멘트	21.6	63.1	84.3	5.8	9.5	15.3	100.0	30.3	43.3	73.7	7.4	18.9	26.3	100.0
亞鉛鍍鐵板	—	3.9	3.9	77.5	18.6	96.1	100.0	—	1.7	1.7	71.3	27.0	98.3	100.0
電動機	63.8	11.8	75.6	24.2	0.2	24.4	100.0	66.3	8.2	74.5	24.9	0.6	22.5	100.0
船舶	34.0	11.7	45.7	54.3	—	54.3	100.0	35.9	8.0	43.9	56.1	—	56.1	100.0

資料：『한국은행조사월보』, 1966年 12月號.

3. 第3次產業의 肥大性

오늘날 後進國一般이 그러하듯이 韓國 역시 1,2次產業의 產業上 比重에 비하여 3次產業의 構成比가 非正常的으로 높다고 하는 것은 再言을 要치 않는 바이다. 旣述한 바와 같이 1965年 현재 3次產業의 構成比는 附加價値基準으로 42.1%, 就業勞動力基準으로 36.9%라는 壓倒的 比重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3次產業의 部門別 構成內容을 살펴보면 第

25表와 같다. 1965年 현재 우리 나라 3次産業의 構成은 附加價値를 基準으로 하여 都·小賣業이 全體의 31.2%로 首位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 서어비스業(23.4%), 公共行政 및 國防(13.9%), 住宅所有(13.1%), 運輸·保管業(12.3%)의 順으로 되어 있다.

또한 1953~65年間의 構成比推移를 보면 同期間中 通信業이 0.6%에서 2.7%로 運輸·保管業이 4.6%에서 12.3%로, 都·小賣業이 22.5%에서 31.2%로 각각 伸張된 反面 住宅所有가 18.0%에서 13.1%로, 公共行政 및 國防이 29.7%에서 13.9%로 각각 減少되었다.

經濟가 成長함에 따라 通信業이나 運輸·保管業의 構成比가 增大한다는 것은 正當하고도 肯定的인 歸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韓國의 3次産業이 都·小賣業, 서비스業 및 住宅所有등을 中心으로 構成되어 있다는 것은 健全한 3次産業의 構成內容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면 이와 같은 財貨의 流通部門과 用役部門의 構成比가 높은 原因은 어디에 있는가. 或者는 資本主義的 後進經濟가 높은 3次産業部門을 擁하고 있는 原因을 潛在失業狀態속에서 別다른 資本裝備없이 就業이 容易한 한편 最低限의 生計維持가 可能하기 때문이라고

<第25表> 第3次産業 部門別 構成比 推移

(附加價値基準) 單位：%

	1953	1955	1957	1959	1961	1963	1965
水道·衛生業	0.2	0.2	0.2	0.2	0.3	0.3	0.3
通信業	0.6	0.8	0.9	1.3	1.7	2.4	2.7
運輸·保管業	4.6	6.1	7.3	8.4	9.0	10.1	12.3
都賣·小賣業	22.5	25.3	27.1	29.2	31.0	32.0	31.2
金融·保險·不動産業	2.8	2.4	2.5	3.1	3.2	3.4	3.1
住宅所有	18.0	17.3	16.7	15.2	15.5	14.0	13.1
公共行政·國防	29.7	25.0	20.4	16.8	16.0	14.9	13.9
서비스業	21.6	22.9	24.9	25.8	23.3	22.9	23.4
合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資料：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1966년판
註：1960年不變價格基準임.

한다. 물론 이는 妥當한 論理이기는 하지만 皮相的인 觀察에 不過하다.

그 根本的인 原因은 1,2次産業의 構造的 特殊性 즉 그 脆弱性과 함께 對外經濟關係 즉 遠隔地商業問題로부터 究明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韓國에 있어서의 3次産業의 肥大性은 2次産業을 中心으로 한 높은 對外依存性과 外國資本에의 從屬性이란 産業構造의 特殊性속에 그 뿌리를 박고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본다면 後進國의 3次産業의 肥大性은 오히려 國內 生産構造와 消費構造의 乖離를 深化시켜 産業構造의 健全한 改編을

沮害하고, 다른 便으로는 外國商品에의 消費市場化를 통한 對外依存性을 더욱 加重시키는 構造的인 原因으로까지 되고 있다.

IV. 產業構造의 改編方向

1. 產業構造의 策定方法과 그 限界

一般的으로 經濟開發計劃의 要締는 分配問題를 一旦 捨象한다면 資源의 調達과 調達된 資源의 配分問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後者 즉 資源의 配分은 投資問題를 意味하는 바 限定된 資源을 如何히 投資할 것인가 하는 것은 결국 投資의 順位策定問題로 歸結될 것이다. 이 投資順位策定은 產業간의 關係에서 본다면 產業別 또는 工業別 育成順位의 策定問題가 된다. 이를 換言하면 產業構造策定問題는 資源의 配分問題로 規定된다.

오늘날 投資順位의 策定方法은 產業聯關理論이 導入된 이래 많은 사람으로부터 數多한 方式이 發表되었지만 아직 合理的인 一般論은 定立되지 못하고 있다. 投資順位의 策定에 있어 共通의 一般論이 定立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各國의 經濟的 與件과 資源의 開發水準의 相異에 基因하는 것이기도 하다.

V.Pareto의 最適基準[5]이 發表된 以後 지금까지 수많은 學者들에 의하여 갖가지의 投資基準이 提示되어 왔다. 즉 먼저 一般基準으로서 H.B. Chenery[6]의 社會的限界生產力基準과 線型計劃基準이 있으며 個別的 基準으로서는 資本係數基準을 비롯하여 資本集約度基準, 國際收支基準, 比較生產費基準, 均衡成長基準, 不均衡成長基準등 大端히 많다.[7]

이중에서 「체네리」는 政府介入에 의하여 각종 用途에 대한 社會的限界生產力(Social Marginal Productivity, SMP)을 均等化할 것을 是認하고 그 均等點을 摸索한다. 그에 있어서 SMP는 資本回轉率, 社會的費用率(社會的價値와 費用과의 差額) 및 貿易差利得이라고 하는 세가지 函數關係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체네리」의 投資基準設定은 部門別基準上에 있어 資本基準이나 國際收支基準의 綜合的인 關係로 理解된다.

---

(5) P. A. Samuelson, *Foundations of Economic Analysis*, 1947.

(6) H. B. Chenery, "The Application of Investment Criteria,"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Feb. 1953.

(7) H. B. Chenery, "Development Policies and Programmes," *Economic Bulletin for Latin America*, 1958.

J. J. Polak, "Balance of Payments Problems of Countries Reconstructing with the Help of Foreign Loan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Feb. 1943.

R. Nurkse, "*Problems of Capital Formation in Underdeveloped Countries*," 1953.

T. Scitovsky, "Two Concepts of External Economi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Apr. 1954.

A. O. Hirschman, "*The Strategy of Economic Development*," 1958.

이러한 「체네리」의 SMP 基準外에 個別的인 投資基準으로서 可用資本의 限定性이 認定되는 後進國에서는 資本係數나 資本集約度가 낮은 産業이 優先되어야 한다는 基準은 모두 주어진 物的資源의 效率을 極大化하는 方向에서 規定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國際收支基準이나 比較生産費基準등은 對外貿易關係에서 얻는 利得을 基準으로 하고 있으며, A.O. Hirschman에 의하여 提起된 不均衡成長基準은 特定産業에의 投資가 他産業에 미치는 波及效果(前後方)를 基準으로 하고 있다.

이들 몇가지 投資基準選定에 관한 理論이 同一하게 基礎하고 있는 點은 價格機構를 媒介로 하는 經濟體制下에서 人的資源에 비하여 物的資源이 不足하다는 經濟與件을 前提로 하고 限定된 資本의 效率的 使用을 그 窮極目標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體制와 假定이 오늘날 後進國의 經濟開發에 있어서 妥當性이 있는가. 一般的으로 後進經濟의 價格體系에 있어서는 經濟諸部門의 隘路로 말미암아 價格의 파라미터的 機能이 部分的으로 밖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더우기 資本主義의 獨占化에 따른 價格硬直性으로 인하여 價格機構에 의한 合理的인 資源配分機能이 否定됨에 따라 人爲的인 資源配分의 必要性이 提起된 사실을 考慮한다면 그러한 價格體系위에서 나타나는 量的效果를 基準으로 投資順位를 策定한다는 것은 嚴然한 論理의 相衝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R. Nurkse 以後 後進國의 經濟發展을 沮害하는 가장 基本的 要因으로서 資本不足을 들고 不足한 資本의 效率的인 使用方途의 摸索을 理論의 主軸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根本的인 問題는 不足한 資本이 아니라 社會的 生産關係일 것이다. 또한 近來 經濟成長에 있어서 一般的으로 蓄積資本보다는 技術의 發達 및 그 改善이 더욱 重要한 比重을 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日本에서의 研究調査[8]에 의하면 生産性向上에 있어서 技術革新의 寄與度는 全産業에 있어 60%, 機械工業에 있어 70%라는 높은 比重을 보였다.

資本이란 社會的 剩餘價値의 蓄積分을 意味할진데 아무리 資本의 有機的 構成度가 낮아 剩餘勞動部門이 적다고 할지라도 資本不足이 經濟發展을 規制할 決定的인 要因으로는 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經濟發展을 制約하는 主要因은 蓄積된 資本이 歪曲된 經濟論理에 의하여 非生産的으로 濫費·誤用되는데에 있다고 보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그러므로 資本不足現象을 打開키 위한 假說위에 定立된 投資基準의 設定은 그 限界性을 認定하지 않을 수 없다.

2. 韓國 産業構造改編方向의 吟味

(8) 韓國經濟人協會, 『民間經協의 方向과 展望』, 1966. p. 98.

韓國에 있어서도 解放後 慢性的인 國際收支의 逆調와 對外依存經濟體制의 是正 그리고 跛行的인 産業構造의 改編을 위하여 1962年부터 第1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이 編成 執行되었고 또한 1967年부터 第2次 5個年計劃이 遂行되고 있음은 周知하는 事實이다.

本稿에서는 同 1,2次計劃의 編成指針이나 執行經過 그리고 實績의 功過에 대한 全般的인 評價를 論議할 階梯는 아니나 다만 産業構造改編問題와 關聯한 範圍안에서 重工業化方向과 輸出優先主義方向에 대한 寸考를 加할까 한다.

먼저 第2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은 基本目標를 産業構造를 近代化하고 自立經濟의 確立을 더욱 促進시키는 데 두고, 目標年度인 1971年에 가서는 鑛工業의 産業上 占하는 比重을 1965年의 21.7%로부터 26.8%로까지 끌어올릴 것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優先的으로 開發할 戰略産業部門을 鐵鋼 및 機械工業과 石油化學工業에 두고 重化學工業과 輕工業과의 比率도 1965年의 27.8% 對 72.2%부터 1971年에는 33.6% 對 66.4%까지 改善하는 것으로 編成되어 있다.

한편 對外去來關係를 보면 商品輸入이 1965年의 462.0百萬弗로부터 1971年에는 893.5百萬弗로 期間中 93.4%가 增加하는데 비하여 商品輸出은 1965年의 175.1百萬弗에서

<第26表> 第2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에 策定된 經濟成長率과 産業構造

	成長率 (%)		附加價値(10억원)		構成比 (%)	
	1962—65	1967—71	1965	1971	1965	1971
農林·水産業	4.8	5.0	296.44	397.26	38.0	34.0
鑛工業	15.3	10.7	168.94	314.16	21.7	26.8
社會間接資本·其他 서비스業	7.1	6.6	314.02	458.25	40.3	39.2
全産業	7.6	7.0	779.40	1,169.67	100.0	100.0

資料：大韓民國政府, 『第2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

1971年에는 550.0百萬弗로 增加하여 期間中 214.1%나 急增하는 것으로 計劃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輸出入構造에 있어서도 輸入은 政府保有弗에 의한 輸入構成比가 크게 增加하는데 反하여 輸出은 鑛産物比重이 줄고 工産物比重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策定되어 있다.

以上과 같이 우리 나라 經濟開發計劃의 特徵은 産業構造 내지 工業構造의 高度化와 輸出優先主義를 통한 輸出入構造의 改善이라고 하는 두가지 面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工業構造高度化方向과 輸出入構造의 高度化方向은 相互補完되는 點이 있기도 하지만 相互背反的인 性格도 同時에 含有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兩政策目標를 同時的으

로 追求하기 위해서는 相當히 高次的인 政策手段이 要請되는 것이다.

이를 좀더 具體的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원래 工業構造의 高度化는 迂廻的 生產度 또는 資本의 有機的構成度의 觀點에서 輕工業部門과 重化學工業部門과의 比率에 의하여 測定될 수도 있고 (Industry Output Approach) 한편 財貨의 經濟的使用目的에 따라 消費財工業과 投資財工業間의 比率關係에 의하여 測定될 수도 있다(Economic Use Approach). 물론 後者를 基準으로 工業構造를 分析하는 것이 보다 問題에 接近하는 길일 것이다. 그러나 實際에 있어서는 分析上의 技術的 制約性으로 말미암아 大部分 經濟用途別 接近方法을 取하지 못하고 業種別 接近方法에 依據하지 않을 수 없다. 그 例로 Hoffmann의 工業化段階說도 理論上으로는 前者에 屬하고 있으나 實證的 分析에 있어서는 後者를 採擇하였기 때문에 결국 輕工業과 重化學工業과의 比率로 돌아가고 만다.

따라서 工業構造의 高度化는 重化學工業部門의 重點的 育成을 意味하게 되는데 이러한 重化學工業部門은 한마디로 資本의 有機的構成度 또는 資本裝備度가 높은 業種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業種의 育成에는 必然的으로 外資所要額이 보다 클 것이다.

한편 輸出指向的인 產業構造내지 工業構造의 改編은 이와 같은 重工業化에 따르는 所要外資를 調達할 수 있는 基礎가 된다는 面에서 兩政策目標가 相互調和的인 關係를 形成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現 韓國의 實情과 같이 輸出實績과 原資材의 輸入實績이 相互併行하는 構造下에서나 또는 輸出과 人氣品目의 輸入이 링크되어 있다면 以上의 相互調和的인 關係는 一義的으로 肯定的인 것만은 못된다.

다음 後進經濟의 輸出構造上의 比較優位性은 무엇보다도 低廉한 勞動力에 바탕한 輕工業部門에 놓여지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는 重工業化의 方向과는 完全히 二律背反的 性格을 띠고 있다. 즉 重工業化의 方向은 資本集約的인 業種의 優先的 開發에 놓여지는데 反하여 輸出指向主義는 勞動集約的인 業種의 開發에 그 優位性이 놓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重工業化開發方向과 輸出指向的인 開發方向은 相互背反되는 限界性에 逢着하게 되는데 輸出指向의 目的이 어디까지나 國內 產業開發에 놓여진다면 輸出指向的 政策目標는 重工業化라는 政策目標의 政策手段的인 性格을 띠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輸出指向的方向이 現在와 같은 原資材輸入을 통한 加工輸出的인 性格을 逸脫하여 重工業化에 必要한 施設材 및 原資材의 輸入代替的인 立場에서 追求되지 않는다면 이는 產業構造改編을 위해서는 何等의 政策的인 意義도 發見할 수 없을 것이다.

3. 韓國 產業構造의 改編方向

產業構造를 어떠한 方向으로 改編할 것인가는 결국 主觀的인 價値判斷問題에 屬한다.

經濟計劃의 內容이 產業構造의 改編을 意味한다면 計劃樹立의 目的自體는 爲政者의 價値判斷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政策目的에 따라 個個의 計劃基準은 相異하게 될 것이므로 共通的으로 適用할 基準의 設定은 있을 수 없다.

그러면 前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構造的 特質을 갖고 있는 韓國의 產業構造는 어떠한 方向으로 改編되어야 할 것인가. 결코 簡單한 問題는 아니지만 本稿에서는 다음과 같은 目的意識下에서 評價되어야 할 것을 指摘하면서 結論에 代하고자 한다.

첫째 自立經濟의 達成 換言하면 經濟的 自主性의 確立이다.

一般的으로 經濟自立이라고 하면 國際收支의 均衡이나 財政收支의 均衡을 基準으로 하여 論議되고 있다. 또한 完全雇傭의 達成을 그 充分條件으로 내세우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論議는 構造的인 質的側面을 無視한 圖式的인 理論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비록 國際收支가 量的으로 均衡되었다고 하더라도 만일 施設材나 原資材의 對外依存度가 높아 輸出國의 輸出制限措置如何에 따라 國內 生產活動 및 輸出實績에 至大한 影響이 招來된다고 하면 이는 眞正한 意味의 自立經濟로 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 財政收支問題에 있어서도 所要產業投資에 대한 支出을 外國資本에다 依存한채 縮小均衡的으로 財政收支가 均衡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참된 意味의 財政收支均衡 또는 自立經濟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앞에서 살펴본 우리 나라 產業構造上의 諸特徵 그중에서도 각 產業 또는 각 工業間의 有機的 聯關性이 缺如되고 經濟의 對外依存的인 性格이 強한 經濟的 바탕위에서 國際收支 또는 財政收支 나아가 勞動力收支가 形式的으로 均衡되었다고 하여 그것이 바로 經濟의 自立問題와 同一視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國民經濟의 自立이라는 意味가 對外去來없이 즉 封鎖經濟體制內에서 國民의 生活資料를 完全히 充足시킬 수 있는 狀態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絶對的인 意味의 單位經濟內의 分業體制의 確立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比較生產費理論에 立脚한 國際分業原理를 認定한 然後의 所論임은 分明하다. 그러므로 自立經濟體制의 達成은 單位經濟內에서 相對的인 分業體系의 確立이라고 規定할 수 있을 것이다. 단지 特定國으로부터의 輸入財貨 또는 技術의 斷絶(制限)이 基本的인 國民經濟生活에 重大한 影響을 招來해서는 안된다는 事實만을 強調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產業構造의 改編方向은 社會經濟的인 二重構造의 解消라는 觀點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外國의 資本과 技術이 導入되어 있는 後進經濟의 경우 資本主義的 發達過程에서 必隨되는 先導產業部門과 落後產業部門間 또는 導入資本 및 技術과 連繫된 產業部門

과 그렇지 못한 産業部門間의 二重性의 深化는 後進經濟의 發展을 沮害하는 構造的 要因으로 되고 있다. 産業構造改編의 窮極的 目的이 國民經濟를 形成하고 있는 각 産業部門의 均衡的發展에 두어진다고 하면 産業各部門에 伏在되어 있는 이러한 二重構造的 性格을 解消치 못하는 한 그 實을 거둘 수 없다는 것은 明白한 일이다.

그러나 二重構造的 性格을 解消한다는 産業構造의 改編方向이 R. Nurkse 나 T. Scitovsky 類의 均衡成長理論과 同義的인 것은 아니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均衡成長理論은 封鎖體制下에서 供給面에서나 需要面으로부터의 隘路를 打開키 위하여 각 産業을 同時併行的으로 開發하자는 主張이다. 그러나 二重構造를 解消한다는 것은 內外를 莫論하고 先進産業部門이 後進産業部門을 收奪하는 不等價交換關係를 拂拭함으로써 全體的인 國民經濟發展의 沮害要因을 除去하자는 뜻이다.

筆者 서울大學校 商科大學
韓國經濟研究所 研究員·所長
서울大學校 商科大學 敎授